

최악 겨울가뭄, 먹는 물도 비상

전남 258개 마을 시간·격일제 급수

물이 보이지 않는 겨울 가뭄으로 남도의 들녘이 타들어가고 있다. 전남 지역 18개 시·군 258개 마을 1만4천49가구가 운반급수 또는 시간제·격일제 등으로 식수를 공급받고 있다. 현재 제한·운반급수를 통해 마실 물을 공급받는 전남 지역민은 모두 3만1천306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가뭄이 계속될 경우 '물 고동'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광주시도 5월까지 500mm~600mm 가량 강수가 없을 경우 상수원 확보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유래 없는 겨울 가뭄으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는 등 산림보호 대책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도내 저수율 또한 부족해 별철 모내기 등을 준비하는 농민들의 심정은 갈라진 저수지 바닥처럼 바짝 타들어가고 있다.

전남도내 저수지 저수율은 전년 84%의 절반 수준인 47%에 그치고 있어 모관 설치시기인 4월과 모내기철인 5월까지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올 영농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끝없는 겨울 가뭄에 전남 도서지역 주민들의 식수난이 심화되고 있다. 8일 신안군 임자도에 사는 한 주민이 '급수 시작'을 알리는 방송이 흘러나오자 대형 고무 물통에 물을 받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7~8월 장마철 이전 완전 해결 어려울 듯

광주·전남지역에 겨울 가뭄이 이어지고 있지만, 완전해갈은 장마철 이전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7일까지 광주지역에 내린 비의 양은 463.5mm로 평년(882.3mm) 대비 52.5%에 그쳤다. 같은 기간 목포는 340.9mm ▲여수 316.4mm ▲산도 391.4로 평년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강수량이다.

겨울 가뭄 발생원인에 대해 기상청은 "지난해 7~8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에 비해 이례적으로 북쪽으로 편재(偏在)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래 머물러 비가 적었다"며 "특히 지난해 9~10월에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된 것도 가뭄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는 태풍이 평년(26.7개)에 비해 적

게 발생(22개)했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의 수(1개)도 평년(3.4개)에 비해 적었던 것도 강수량이 적은 이유다.

우리나라 연평균 총 강수량은 1315.9mm 중 총 강수량의 약 53%가 여름철에 내리고 총 강수량의 30% 정도가 태풍에 의한 강수인데 지난해 유달리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이 적었다는 얘기다.

기상청은 2월에는 대륙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아 강수량이 평년(37.5mm)보다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2월부터 5월까지의 평년 강수량은 298.3mm로 평년 강수량(1315.9mm)의 약 23% 정도"라며 "이 기간 동안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강수량을 나타낸다 해도 현재의 겨울 가뭄 현상은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예보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관정 개발·상수도 공급...식수 확보 총력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8일 '봄 가뭄 대비 수돗물 공급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대책에 따르면 급수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물 절약을 위한 수량관리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 등을 추진한다.

주요 수원인 동북수원지와 주암호가 4일 현재 각각 39%와 26.4%의 저수율을 보임에 따라 단계적으로 취수량을 조절하고 기상변화 등을 고려해 물을 공급하는 한편 물 절약 생활화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주암호를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 본부도 식수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비상수 자원 관리 대책을 마련, 1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운반·제한급수 지역이 확산함에 따라 근본적인 식수난 해결을 위해 관정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10월21일부터 가뭄종합대책 상황실을 운영중에 있으며, 지난해 12월 말까지 국비와 도비 44억원을 지원해 총 70개 마을에 대한 1차 관정개발을 완료했다.

특히 전남도는 식수난 해결을 위해 올해 상수도사업비 1천400여원을 조기 집행하고, 30개 마을에 대해서는 자체 상수도 공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가뭄지역 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농업용 지하수를 수질검사 뒤 식수로 사용할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농도인 전남도는 농업 용수 부족도 심각한 상황이다. 저수지 저수율이 예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올 봄 영농에 차질이 예상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2기 경제팀 '윤증현호'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예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면제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지방 미분양 아파트 판매제한 완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에 힘이 실리게 됐으며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도 약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조세 정책은 전반적인 감세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경기 침체기인 점을 감안해 잡 세어림과 기업 구조조정,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강화된다. 외환보유액은 좀 더 보수적으로 관리되며 한국투자공사(KIC)의 역할은 커진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윤증현 장관 내정자에 대한 검증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부동산 규제에 대한 대폭적인 완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윤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지금은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시점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시장 형성이 시급한 시기"라고 말했다.

부동산시장과 관련, 정부는 조만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향후 1년간 구입할 경우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판매제한 규제도 완화키로 입장을 정리 중이다.

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의 강남·서초·송파 3구에 대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안을 올리는 한편 민간주택 분양가 상

한제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윤 내정자는 또 부동산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투기지역 조정 등을 통해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주택담보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추경 편성 시기가 당겨질 공산이 커졌다. 규모는 10조 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또 2월 취업대란이 우려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채용을 깎아 인턴 채용을 늘리는 등의 고용대책을 마련 중이다. 중소기업과 공공부분의 청년 인턴 규모는 예초 5만~6만명에서 7만~8만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일 나누기(잡세어림)에 참여하는 사업주에게 손비 처리 확대 등을 통한 세금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을, 근로자에게는 추가 소득공제 제공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고용기간을 2년으로 못박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개정 때문에 오는 7월 대규모 해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이 달 중 국회에 내기로 하나라당과 의견을 모은 상태다.

지금까지는 고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안이 유력했지만 윤 내정자가 "경제위기를 맞아 기간(제한)을 없애는 게 옳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비정규직 파견허용 업종도 현행 32개에서 대폭 확대된다. /연합뉴스

"J프로젝트 부지 유리온실 사업 취소해달라"

전남도, 농식품부에 강력 요청

전남도가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 개발예정지 중 한 곳인 송천지구에 농림수산식품부가 대규모 유리온실 단지를 건립하려는 계획을 취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 J프로젝트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남도 이상면 정무부지사와 J프로젝트 실무진은 최근 농림식품부 민승구 제1차관을 만나 J프로젝트 사업이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 부지사 일행 등은 민 차관에게 J프로젝트 개발예정지 중 한 곳인 해남군 산이면 2-1공구 간척지(7.13km²·송천지구)에 추진중인 대규모 농업회사 건립계획을 인근 미분양 간척지인 마산지구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특히 농림식품부가 대규모 농업회사 건립계획을 발표한 송천지구는 이미 외국자본의 투자유치지역인 만큼 부지 이전의 당위성을 알리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종 전남도 투자정책국장은 "농림식품부 제1차관이 새로 임명됨에 따라 인사와 함께 그동안 J프로젝

트 추진 내용 등을 설명하는 등 J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가 대규모 농업회사 설립을 추진중인 송천지구는 미국 트러스트 그룹이 지난해 7월 전남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45억 달러를 투자해 세계적인 수준의 카지노와 호텔을 세울 계획이다. 트러스트 그룹은 현재 송천지구 내 개발을 위한 SPC 설립 및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중에 있다. 하지만, 농업회사 설립 사업자 공모까지 끝낸 농식품부가 전남도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의문시된다.

한편, 전남도는 J프로젝트 개발계획의 심의 대상을 확정해 달라는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요청과 관련, J프로젝트 6개 사업지구 중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낸 산호·구성 등 2개 지구만 심의를 줄 것을 중도위에 요청하고 보완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전남도는 국토해양부·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과 만나 중도위 심의대상 범위를 2개 지구로 확정할 방침이다. 또 중도위 지적사항인 2개 지구 개발계획안의 녹지완충지와 교통계획 등을 보완해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중도위에 산호·구성지구 개발계획 안을 다시 상정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내에서 2009년 9월 입학보장 받고 떠나는 리틀차이나 중국명문대학 진학 프로그램!!

www.littlechina.co.kr

• 중국명문대학들이 리틀차이나를 파트너로 선정하였습니다. • STEP과정 1기~7기 수료자 전원 100% 중국 명문대학 합격 보장!

리틀차이나 STEP과정이란?

- STEP: Series Training in Educational Programs (단계별 학습)
- 1기 프로그램은 중국어 초급수준인 학점은행제 1등급으로 중국명문대학 입학 가능 및 대학입학 후에도 인정됩니다.
- 2기~7기: 1~6등급으로 중국명문대학 입학 가능
- 8기: 대학입학 후에도 인정됩니다.

국·내·외·국·적

리틀차이나

다문화교육 (0~9세)

1기~7기 과정

중국명문대학

2009년 9월 입학

입학보장

리틀차이나 STEP과정 수료된 중국명문대학 진학 프로그램

STEP	수료기간	진학대학	진학시기
1기	2009년 10월~2010년 1월	중국명문대학	2010년 9월
2기	2010년 1월~2010년 4월	중국명문대학	2010년 9월
3기	2010년 4월~2010년 7월	중국명문대학	2010년 9월
4기	2010년 7월~2010년 10월	중국명문대학	2010년 9월
5기	2010년 10월~2011년 1월	중국명문대학	2011년 9월
6기	2011년 1월~2011년 4월	중국명문대학	2011년 9월
7기	2011년 4월~2011년 7월	중국명문대학	2011년 9월

STEP 7기 수료자 입학

1기: 2009년 10월 15일 10:00~11:00

2기: 2010년 1월 15일 10:00~11:00

3기: 2010년 4월 15일 10:00~11:00

4기: 2010년 7월 15일 10:00~11:00

5기: 2010년 10월 15일 10:00~11:00

6기: 2011년 1월 15일 10:00~11:00

7기: 2011년 4월 15일 10:00~11:00

문의: 리틀차이나 중국명문대학 3층

02-233-9582

주최: 리틀차이나 중국명문대학 후원: 광주일보사, 전남일보사

상당문의 ☎ 02-233-9582 (평일 9시~18시)